

【호우피해의 경험와 교훈】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오늘 7월 호우피해 이후 첫 의회인 9월 정례 시의회가 끝나고 약 91억 2천만엔의 피해 관련 추가 경정예산(피해자 생활 재건 지원 38억 5천만엔, 공공시설 등의 복구 약 52억 6천만엔)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호우피해는 오카야마시에서 처음으로 호우특별경보가 발령되어 하천의 범람과 내수에 의한 침수, 산사태 등이 시내 각지에서 발생 하는 등 헤세이에 들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적은 곳으로 알려졌던 오카야마에서 일어난 호우피해의 대처로서 직원이 열심히해 주었다고 생각되는 한편 피해 대처에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피난 정보의 전달과 대피소의 운영 등 대처가 충분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 자신이 내각부의 방재담당이었던 경험을 살리고자 재해발생 직후부터 전두지휘를 하기위해 전체 상을 파악한 후 몇번이고 피해지를 돌며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만 시의회나 몇 분의 시민분들은 「피해발생하고 수일간 시장 얼굴을 못 봤다」 「시장은 피해자의 마음의 지주가 되어야 한다」 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좀더 빠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저의 움직임이나 메시지를 언론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풍 다발과 집중 호우 발생 등 적지만 지구 온난화 영향이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지금, 향후 이번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시의 피해 대처에 관해 여러가지 지적이 있어, 개선점은 신속히 개선하고 청내의 위원회도 빨리 발족시켜 과제 정리와 피해대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연도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며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지식인 분들의 의견을 받는 등의 계획도 세워 이번 경험을 좋은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